

지 상 법 석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1)

明教嵩禪師尊僧篇 (명교송선사존승편) ③

故 其於天下也 能必和 能普敬 其語無 故 其於天下也 能必和 能普敬 其語無 고 기어천하야 능필화 능보경 기어무 妄故 其爲信也至 妄故 其爲信也至 망고 기위신야지

산공곡

말은 일이 하찮거나 낮은 지위라도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며 (또한) 도로써 처함에는 비록 심산유곡에

其其木木其食 晏然自得 不可以利 誘 其其木木其食 晏然自得 不可以利 誘 초기의목기식 안연자득 불가이리 유 不可以誘 屈 不可以誘 屈 불가이세 굴

풀로 옷을 삼고 나무열매로 밥을 삼아도 편안하게 스스로 만족해 하는지라 이곳으로 유혹하지 못하며 위세로써 굴복시키지 못하고

謝天子諸侯 而不爲高 其獨立也 以道 謝天子諸侯 而不爲高 其獨立也 以道 사천자제후 이불위고 기독립야 이도 自勝 豈非相與 自勝 豈非相與 자승 수형영상조

천자 제후의 자리를 사양했다하여 고결하다 하지 않으며 홀로 우뚝서면 도로써 스스로 빼어나니

비록 형상과 그림자가 서로 불쌍이 여길지라도 (비록 매우 외로워 의지할 곳이 없는 신세일 지라도)

그러므로 능히 일체의 유정·무정에 반드시 화합하여 두루 공경하느니라 (또한) 스님의 말씀 망녕되지않는 고로 그 믿음이 지극하며

其法 無我故 其爲謙也誠 有爲可敬 有 其法 無我故 其爲謙也誠 有爲可敬 有 기법 무아고 기위양아성 유위가경 유 儀可則 天人望而讚然 儀可則 天人望而讚然 의가즉 천인망이업연

그 법에는 아성이 없는고로 결양이 진실되며 행주좌와중에 여법하여 위엄이 있어 공경할만하고 천·인이 바라보며 엄정하여

能福於世 能壽於俗 其忘形也 委禽獸 能福於世 能壽於俗 其忘形也 委禽獸 능복어세 능도어속 기망형야 위금수 而不捨 而不捨 이불인

능히 세상에 복이되고 능히 세속을 인도하느니라.

“명예·이름을 산골 메아리 같이 보고 무리지어 살때 법으로써 권속 삼아야”

(또한) 그 물을 잊음에는 금수에게 내 맡겨도 아끼지 않으며

其讓讓也 曾寒而不發 以法而出也 其讓讓也 曾寒而不發 以法而出也 기독송야 모한서이불페 이법이출야 遊人間備聚落 遊人間備聚落 유인간변취락

독송을 함에는 춥고 더움을 무릅써서 폐하지 않고

법으로써 세상에 나갈때는 (세상에 법을 전하고자 함에는) 인간세상·마음을 두루 돌아다니되

視名 若谷響 視利 若遊塵 視物色 若 視名 若谷響 視利 若遊塵 視物色 若 시명 약곡향 시리 약유진 시물색 약 隔塵 則與諸病 隔塵 則與諸病 양염 추구빈병

세속의 명예·이름 보기를 산골짜기 메아리 같이 보고, 이곳을 보기를 떠도는 티끌보듯하고

사물과 형색보기를 아지랑이 보듯하고 가난한 병자를 돌볼 때는 따뜻하게 감싸 안아 기르듯이 하고

瓦合與擧 而不爲卑 以道而處也 雖深 瓦合與擧 而不爲卑 以道而處也 雖深 와합여대 이불위비 이도이처야 수심 山窮谷 山窮谷 龍眼

而不爲孤 其群居也 以法爲歸 會四海 而不爲孤 其群居也 以法爲歸 會四海 이불위고 기군거야 이법위속 회사해 之人 而不爲混 之人 而不爲混 지인 이불위혼

고독하지 않고 대중과 무리지어 살때에는 법으로써 권속을 삼는지라 온세게 사람이 다 모인다고도 뒤섞이지 않으며

其可學也 雖三藏十二部 百家異道之書 其可學也 雖三藏十二部 百家異道之書 기가학야 수삼장십이부 백가이도지서 無不詳也 無不詳也 무부지야

가히 배울때에는 비록 경·율·론 삼장과 12부와 백가의 다른 도의 서적이 라도 알지 못하는게 없고

他方世俗之言 無不通也 祖述其法則 他方世俗之言 無不通也 祖述其法則 타방수속지언 무불통야 조술기법즉 有文有章也 有文有章也 유문유장야

다른 지방 다른 풍속의 말이라도 통하지 않는게 없다.

(고로) 옛날과 지금의 법을 저술함에 실다운 진리의 글과 문장이 있으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불교를 믿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는 데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를 명쾌히 대답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부처님의 법은 광대무변이라 하루아침에 다 배워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곳곳마다 부처님이 아니게신 곳도 없다하여 불법의 무한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이란 말입니까.

“나의 참 모습을 깨닫고 남의 고통을 구해준다”는 것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즐겨 내놓는 대답이지요. 참으로 훌륭한 대답입니다. 백점짜리 대답임에 틀림이 없지만 불교는 그 좋은 대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많은 불자들이 이 대답에만 갇혀서 불교신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의 참 모습을 깨닫고 남의 고통을 구해준다라는 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수행과 이타행의 모든 것을 감싸 안은 말입니다. 그러니 매우 훌륭한 의지의 표현, 즉 불교신행의 다부진 원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참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나는 이 물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나’에 대한 의심을 풀는 데에서 불교는 시작되

“우리몸엔

안이비설신의

여섯 도적이

싫없는 번뇌일으켜

참모습 가리고 있어요”

는 것입니다. 부처님게서도 바로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에서 생로병사의 문제로 커져가는 의심령아리를 깨치기 위해 출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달마 이래 중국, 수 많은 조사들과 우리나라의 면면히 내려오는 조사들의 선택과 강맥이 다 나를 바로 보는 지혜의 쪽보이니 우리들도 진정한 나를 찾아 내내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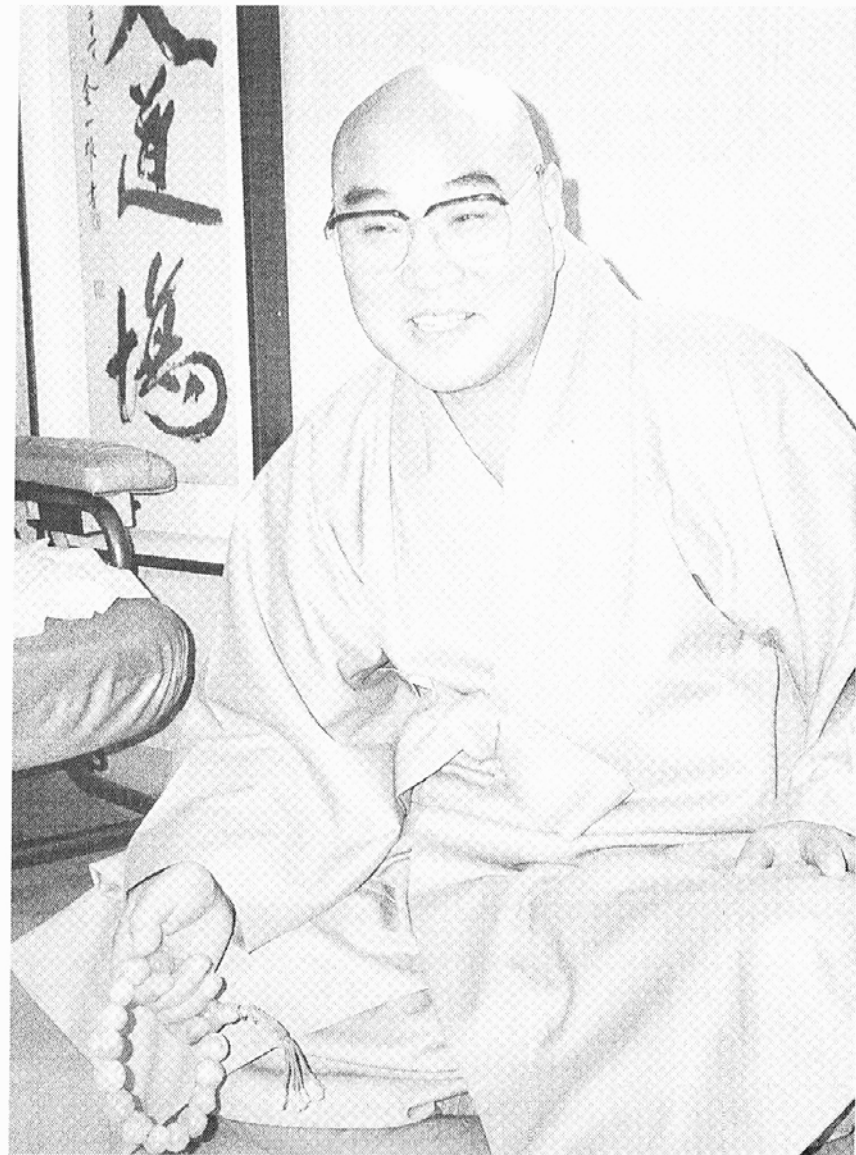
우리 몸에는 여섯의 도적이 있어 내가 나의 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안(眼)이 (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라는 이 6진이 단 한 찰라의 순간도 쉬임이 번뇌망상을 일으키니 어찌 오묘한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 6진이 일으키는 경계를 뿌리째 뽑아 낸 자리에서 원종묘각을 성취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화두들기를 권해 온 것입니다. 화두를 들어도 그냥 들었구나 실체만 들어서서 아무것도 안됩니다. 어찌정하게 화두들고 수행하는 일은 마음자리에 구름만 더 쌓아놓는 부질 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저 넓고 푸른 하늘에 밝은 해가 떠 있는

월서스님 (제주 청왕사 주지)

약 력

- 1936년 생
55년 금오스님 계사로 사미계, 59년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60년 법주사 강원, 72년 동국대 행정대학원 졸
조계종 4, 5, 6, 10대 종회의원
8대 종회의장
문화사, 조계사, 불국사 주지 역임
조계종 초심 호계원장(현)



줄이야 다 알지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어둡고 혼란이듯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탐진치와 회노애락이 모두 다 태양같이 밝은 자성을 가리는 구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물쩍 화두를 들고 닦는다고 머구름만 더 쌓는 일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화두를 들고 공부해 하되 어떻게 해야 하나. 낯선전에 입학하신 성철스님께서 누누히 강조하던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매일여(猶寐一如)의 경지를 놓지 말고 수행하려는 것인데 이 경지에 오르는일도 쉬운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선은 행주일여(行住一如)의 경지에서 움직이기

나 머물러 있거나 변함없이 화두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다음에는 같은 공속에서 마저 화두를 놓지 않는 몽중일여의 경지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속매일여라 해서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경지를 통해서 오매일여 즉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공속이거나를 구별 없이 정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매일여의 수행을 하다가 문득 화두를 깨치고 나면 그만 마음을 가리고 있던 머구름이 다 사라져 환한 자성의 자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한 상자에 보물을 넣어 두면 그 보물이 안에

서나 밖에서나 다 잘 보이는 것과도 같은 이치인데 아무리 빛나는 보물이라도 상자가 두껍고 때묻어 있으면 잘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마음 속의 보석을 안에서나 밖에서나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상자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화두를 들고 오매일여의 경지에서 수행을 하고 또 종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도의 삶이란 다들 아시다시피 치우침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치우침은 마음은 바른 삶의 길을 흐트리는 요인이 됩니다.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고 넘쳐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락아정의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야금의 무명실을 너

Advertisement for Hyeonjeon Production (현제프로덕션) featuring various images of nature and production equipment.

Advertisement for Hyeonjeon Production (현제프로덕션) detailing services like video production, photography, and editing.